

# 어머니가 닦은 복전 (상)

하용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아집과 망상에 가득찬 젊음 시절에 천 년 만 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모든 복이 내게로 올 것만 같았던 터무니없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편안했던 마음.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화창시절. 한국은행 불교회 활동을 할 때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들. 모두가 다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다. 타국 땅에서 떠오르는 지난 기억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 기쁘고 반갑다.

타국 땅에서 부처님 법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고 자랑이다.

홍콩 땅을 밟은 것은 올해 4월 1일이다.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발령을 받아 책담 꼭 공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그 때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들었던 청담 스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떠올랐는지...

타국에서 맞는 부처님오신날.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니 복을 더 많이 지어 아꼈다는 생각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청담 스님 말씀이 귀가에 맴돈다.

중생은 누구나 다 수명이 허공과 같아 시작과 끝이 없고  
중생은 누구나 다 복이 우주에 가득해 있고 없음이 없다.  
다만 스스로 지은 바에 따라 누릴 뿐이다.

홍콩의 생활은 생각보다는 편안하다. 집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보다 훨씬 좁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기는 하

지만 다행히 아파트가 산중턱에 있어 아침마다 50분 동안 산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열 불을 하노라면 부처님 세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게다가 자연경관도 좋아 자연과 하나가 되니, 그 기분을 즐기는 것이 여간 재미있지 않다. 누가 홍콩생활의 가장 큰 낙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한다.

아파트가 위치한 뒷산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피크'인데, 기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 갈 수 있는 홍콩에서 제일 높은 유명관광지로, 한자로는 '태평산'이라고 한다. 정상에는 '사자정'

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한다. 어머니의 불심과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와 결혼해 5년 2녀를 두셨다. 우리집은 행복했다. 형제들은 우애가 좋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지냈다. 게다가 아버지 사업도 번창했고, 친가나 외가 친척들 모두 편안했다.

집은 항상 친척들로 북적였고, 어머니는 그렇게 사람 사는 냄새를 좋아하셨다. 어떤 사촌 형제들에게는 학비까지 대주셨고, 며

## 풍요롭고 주위에 베풀며 살았던 우리집 아버지 사업 실패 후 끼니 걱정하며 생활 발길 끊은 사람들 보며 각박한 인심에 절망

이라는 동양식 정자도 있다. 아침마다 태평산 사자정에 오르내리면서 체중이 5kg이나 줄었고, 덩달아 욕심도 줄었다. 3년 전 과천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많은 것을 버린다고 버렸지만 욕심은 버리지 못했었는데, 이곳을 오르내리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하곤 한다. '서울로 돌아갈 때는 욕심까지도 버리고 가겠다'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남너소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했다. 이곳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곳 정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만나는 분들이 먼저 반갑게 아침인사를 건네 온다. 하심한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피부로 느낀

질씩 묵고 가는 인척들에게는 아버지 물레차비까지 두둑히 챙겨 주셨다.

심지어는 형 친구들까지 먹이고 인허주셨는데, 그 중에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정신적인 지주였고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던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부산 광복동에서 큰 빌딩과 해운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업가로 제법 이름을 날리던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사업을 서울로 확장하시다가 실패한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지만 우리 집



그림 · 문병성

은 그렇지 못했다. 서울 남산 밑 후암동 500평 규모의 2층 양옥 대저택에서 살았던 우리 식구는 적선동 40평 한옥으로 옮겨가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은 악화됐고 다시 화동 2칸 방 전세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식구들은 모두 민오러 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2칸 방에서 9명의 가족이 살자니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컸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로 견디었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보며 매우 힘들어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남산엘 자주 오르시는 아버지를 보는 식구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힘들기는 어머니와 형과 누나들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누나들은 급작스런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

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풍비박산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가세가 기울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식구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것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일도 없

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또 있었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뜰 줄어든 것이다. 단 하루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적막강산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끼니 걱정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인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계속)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 김문기 박사의

##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료합니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더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머니마찬가지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복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에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최중용)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